

유리문화

2011.12 Vol. 233 December

올 한해
지역문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였을
문화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직원 일동



2011. 12 Vol. 233 December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
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
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
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
니다.

02 연합회 소식	2011 국회 시낭송의 밤
04	강원 5개 문화원 강원도지사 면담
05	2012 향토사 대중화 사업 'DMZ스토리'
07 문화산책	
08 연합회 소식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10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워크숍
12 전국농어업인 품물경연대회	
15 당동 반갑습니다	충남예산문화원
18 문화원 이야기	문화늦둥이, 문화원에서 기지개 켜다
22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울산중구·담양문화원 공연
24 문화원 이야기	남해문화원
26	마포문화원
27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돋보기
32	우리문화 소식
	동정

2011 국회 시낭송의 밤

지난 11월 24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80분 동안 시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시인, 문화원장 등이 모여 '2011 국회 시 낭송의 밤' 행사가 있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재희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오을(사무총장), ▶김영환(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재윤(국회의원) ▶전병헌(국회의원) ▶허원제(국회의원) 등이 애송시 및 자작시를 읊으며, ▶허영자, 이길원, 성춘복 시인 등이 낭송을 했다. 특별손님으로는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과 한피국악예술단 오은명 단장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져 박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문화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승인 ▶최불암 씨가 윤동주의 『자화상』을 낭송 하였고 ▶사진작가 김중만씨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배경으로 자작시를 읊었다. 미안마 유학생 ▶쉐ئم훈(연세대 국어국문과)은 미안마의 시『여전히 꽃을 달며』를 미안마어와 한국어로 낭송하여 국경 없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대한민국국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으며, 그리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이근배 시인의 사회로 시낭송과 표재순(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씨가 연출한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오프닝 공연, 이운경, 류석훈씨의 현대무용, 가수 유열과 국악인 김영임 등이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시는 읽는 이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므로 이런 면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한번쯤은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이라고 말하였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시낭송의 밤이 삶의 여행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시낭송회가 끝난 뒤 국회의사무총장 주재로 리셉션이 있었다.

1. 권오을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과 한외국악예술단 오은영 단장의 공연
2.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3. 국회 의원화관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4. 행사를 찾은 귀빈들
5. 국악인 김영임의 공연모습
6.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의 격려사



다섯 문화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

11월 22일, 인제·양구·철원·화천·고성 문화원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다섯 개 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향토사대중화사업의 결과물인 책자와 사진을 강원도청에서 전시 하면서 미리 약속이 잡혔다.

전시장을 찾은 최문순 지사는 문화원 관계자들과 전시된 사진을 감상했다. 이어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최중수 회장은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다섯 문화원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문화원은 같은 예산을 들여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문화원을 문화의 중심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원영환 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은 "강원도는 일제치하-해방-전쟁-분단으로 이어지는 우리역사에 관해 모아놓은 사료가 매우 적다. 접경지역만 해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사해서 모아놓으면 다른 콘텐츠로 변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연인 고성문화원장은 "옛일을 기억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고인이 되어 증언할 사람도 많지 않다. 이들이 죽기 전에 채록을 해두려고 군에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채록은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유수 양구문화원장은 "강원도에서 '사랑방사업'으로 각 문화원에 4백만 원을 배정해 주어 고맙지만 이 예산으로는 채록사업을 하지 못한다. 증액을 바란다. 그리고 DMZ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환경이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덕우 인제문화원장은 "공직에 있다가 문화원에 들어와 보니 문화원이 그 지역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제는 문화원을 시군의 하급단체로 보지 말고, 차원을 달리해서 정신계몽센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요즘은 좋은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돈은 있다. 도지사가 기업을 찾아가 협찬을 받아오거나 문화원에 기업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DMZ도 개발하면 좋은 관광지가 된다"고 말했다.

다섯 문화원 국장들은 이번 환담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에 회동하기로 했다.

정무교 한림성심대 강사, 우리문화 객원기자

2012 향토사대중화사업 ‘DMZ 스토리’





‘DMZ 스토리’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청 달빛카페에서 열리는 순회전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DMZ 스토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향토사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DMZ 접경 5개 문화원(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이 지난 5월 화천 DMZ 아카데미에서 전체발대식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스토리텔링과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분단의 상징으로만 기억되던 DMZ가 아닌 일상의 삶 그대로를 재해석하는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8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로 진행됐다. 해방이후부터 6.25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에서 살아오신 얘기들을 듣고 스토리텔링, 사진과 동영상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제작되었다. 철원은 근북면 유곡리, 김화읍 생창리, 근남면 마현리, 철원을 대마리, 동송읍 양지리 등 민북마을을 통해 돌아본 지난 이야기, 화천은 군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상서면 산양리 이야기, 양구는 편치불로 유명한 해안 이야기, 인제는 평화생명동산을 비롯해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다. 5개지역 중에 유일하게 바닷가인 고성은 동해 최북단 현내면의 대진항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히 전후세대 그것도 전쟁과는 거리가 먼 십대 청소년들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 끝으로 강원도 DMZ 접경지역 뿐 아니라 DMZ와 접해있는 경기도의 파주, 연천, 인천의 강화, 옹진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되어 휴전선 155마일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문화와 역사가 새롭게 이해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태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임





문화산책

사진 · 김중만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중만 사진작가가 담은 제주도의 설경이다.
JOSEON DYNASTY, JEJU ISLAND M.T HALLA 2011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2차 통합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지난 11월 8일(화) 11시부터 서울 수유동의 호텔아카데미하우스에서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이 열렸다.

1차 현장방문 컨설팅의 결과에 기초, 사업수행단체들 간의 공유와 소통의 논의의 장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사업수행단체 실무자와 지역 매개자가 함께 참여하여 각 단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나뉘어 서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연속지원 및 신규지원 수행단체 관계자와 주민활동가 각 2~3인, 평가컨설팅 위원 7~9인, 문화체육관광부 2인, 한국문화원연합회 2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3인 등 약 70명이 모였다.



▶ 일정

일자	진행시간	프로그램	비고
1일차 10/8(화)	11:00~11:30	현장 도착 및 등록 - 이름표 및 숙소 배정	
	11:30~12:00	행정업무 안내 및 정산안내 - 한국문화원연합회, 태영회계법인	
	12:00~13:00	중식	
	13:00~13:30	소개 - 워크숍 전체 개요 및 일정소개 - 단체별 관계자 & 주민활동가 소개 및 인사 - 컨설팅 위원 및 관계자 소개	
	13:30~18:00	공유> 사진으로 보는 우리마을, 우리사업 - 발표자 : 주민활동가 또는 단체 관계자 - 내용 : 현재 진행된 사업을 사진으로 설명, 남은 사업 & 고민점 (1~2p)	단체당 10분
	18:00~19:00	석식	
	19:00~21:00	분임토론1) 토크 & 어드바이스 - 지역공동체 구축에서의 핵심 과제 - 남아있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들	3개 조로 나눔
	21:00~	뒷풀이) 소통과 대화 - 단체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 간단한 레크레이션	
2일차 10/9(수)	~9:30	조식	
	9:30~11:00	분임토론2) 토크 & 어드바이스 -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공동체란?	3개 조로 나눔
	11:00~	정리 및 해산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창의적체험활동지원사업)

성과제고 및 문화원 모델개발 워크숍 열려





▶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문 화 원	컨설턴트
서부권	11.14(월)	대전 대덕문화원	대전대덕, 광주광산, 광주남구, 공주, 연천, 동두천, 동해, 부안, 남원, 구례, 보성(11개원)	정민룡
동부권	11.15(화)	부산 동래문화원	부산동래, 울산중구, 거창, 김해, 함안(5개원)	신동호
중부권	11.25(금)	경기 과천문화원	성동, 송파, 연수, 과천, 안성, 안성, 파주, 평택, 하남(9개원)	김양식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창의적체험활동지원사업)의 조기 정착 및 문화원 모델 개발과 전문가에 의한 사업 모니터링 강화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인 창의적체험활동지원사업의 워크숍이 열렸다.

대전, 부산, 과천 총 3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으며 모니터링 및 사업의 문화원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컨설턴트 3명 포함, 25개 문화원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풍악을 울려라 전국의 깃발이 새로 선다!

제16회 농어업인의 날 기념
“2011 전국 농어업인 두레 풍물경연대회”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 입성한 전국의 8개팀이 모였다.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11 전국 농어업인 두레 풍물경연대회”가 바로 그것.

아침부터 남산 한옥마을 안은 전국 각지의 사투리 소리가 가득했다. 한두 걸음 걸으면 들리는 전국의 팔도 소리에 공연 시작도 전, 전국여행이라도 다

녀온 듯 하였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기(성남농악보존회 / 성남오리뜰두레농악), 충북(청원농기놀이

보존회 / 남이동구레들 농기놀이), 충남(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 송악두레풍물), 강원(강릉농악보존회 / 강릉농악)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중식 후 재개된 공연으로 전북(부안농악 / 호남우도농악), 경북(선산풍물보존회 / 선산풍물), 경남(김해문화원 풍물단 / 김해풍물놀이), 전남(담양문화원 민속예술보존회 / 풍작놀이)의 숨쉴자랑이 펼쳐졌다. 공연의 막바지 무렵에는 비가 쏟아져 장내가 소란하였으나 공연단의 흥겨운 진행으로 비를 피하지 않고 함께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잠깐의 비가 지나고 이어진 축하공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사물놀이패 ‘유소’, 행사의 진행을 맡은 MC 남상일, 서울 컨템퍼러리 국악관현악단, 전명신, 명창 김혜란, 양희진, 한정이, 가아금병창단 ‘디올’, 가아금듀엣 가야랑, 방송관현악단/광개토사물놀이패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의 대상의 영광은 경북 구미의 선산풍물보존회 / 선산풍물에게 돌아갔으며, 자세한 수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상에게는 7백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 2011 지방문화원 전국 농어업인 풍물경연대회 참가팀

지역	문화원	참가팀명/ 작품명
경기	성남	성남농악보존협회 / 성남오리뜰두레농악
강원	강릉	강릉농악보존회 / 강릉농악
충북	청원	청원농기놀이보존회 / 남이동구레뜰 농기놀이
충남	온양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 송악두레풍물
전북	부안	부안농악 / 호남우도농악
전남	담양	담양문화원 민속예술보존회 / 풍작놀이
경북	구미	선산풍물보존회 / 선산풍물
경남	김해	김해문화원 풍물단 / 김해풍물놀이

▶ 2011 지방문화원 전국 농어업인 풍물경연대회 수상 내역

시상	성격	상금 (단위:천원)	지역	문화원	참가팀명/ 작품명
대상	1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7,000	경북	구미 선산풍물보존회 /선산풍물
금상	1팀	서울특별시시장상	5,000	경기	성남 성남농악보존협회 /성남오리뜰두레농악
은상	1팀	국악방송 사장상	4,000	충남	온양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송악두레풍물
동상	1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3,000	전남	담양 담양문화원 민속예술보존회 /풍작놀이

딩동, 반갑습니다

예산에 부는 바람, 문화원 바람

한류열풍으로 세계가 뜨겁다고 하는데 예산에서는 한류 못지않은 다른 바람이 분다. 바로 문화원 바람이다. 과장 보텐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예산지역에서는 요즘 한 인기한다는 문화원이다. 술술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예산문화원, 그곳을 들여다본다.





왼쪽부터 간사 김상희, 사무국장 박세진, 원장 김시운, 직원 이해인

택시타고 외치다 예산문화원이요!

예산문화원, 지역에서는 꽤 유명세다.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를 높이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간 문화원의 전략 때문이었다. 문화원의 인지도는 택시에서 나타난다. “○○문화원이요.” 할 때 바로 가주면 그건 지역에서 꽤 알아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예산도 덧붙이는 설명 없이 문화원사 앞에 도착했다. 원사 뒤로 단풍이 짙어올리는 가을 낮이었다.

우리문화원은 우리가!

1955년 설립된 문화원 중의 형님군이다. 한 때 어땠느냐 묻기보다 일단 역사로 지역에서 굳건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사를 갖춘 지도 오래다. 그것만으로 보면 이 문화원 너적한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다.

“처음 취임하고 개인사비로 월급을 줄 정도였어요. 예산이 낮으면 문화원이 하는 일도 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한해 두해 노력해가면서 예산확보도 하고 훌륭한 직원들을 필두로 위탁사업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니 이제 슬슬 지역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김시운 예산문화원장은 그야말로 문화원지킴이다. 공직 시절보다 오히려 출근해 있는 시간이 더 길 정도라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 문화원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어느 한 곳 김원장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문화원 앞마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아주머니들의 다과상에, 사무국은



예산문화원장 김시운



말할 것도 없다. 그만큼 꼼꼼하게 문화원을 챙긴다. 그럼으로 인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가에 대해 파악이 되는 것이라고.

문화로 하나됨 나눔으로 하나됨

“경제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이 문화가 아니예요. 무엇이든이 그 저변에 문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곳,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요. 이 문화가 이 문화를 하는 곳이 하나의 소통이, 또한 소통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념보다 문화로 하나 되는 게 우리의 꿈이죠.” 어디든 좋다. 문화를 나누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디든 좋다고 말하는 김원장이다. 그곳이 문화원이면 더 좋다, 우리면 더 좋은 것이다.

예산의 이모저모

예산문화원이 하는 일 또한 여느 문화원과 그 궤를 함께 한다.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역시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원이다. 지역문화학교 14개 강좌 운영, 문화가족문화탐방, 문화단체지원사업(예담 사진전, 서터소리 사진전시회, 여섯줄 공연, 락소리패 공연) 향토문화보존 마을동계 지원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 「예산의 지명유래」 증보, 추사 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전국회화대회 개최 등 한 해가 짝 차 있다. 문화원이 문화원이기에 더욱 노력하고 문화지킴이로써 함께 하는 것이 하루하루 즐겁다는 예산문화원 식구들이다. 그들의 웃음 뒤로 풍성한 낙엽이 진다. 그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주민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뿌러지듯이.

문화늦둥이, 문화원에서 기지개 켜다

한국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어르신들이다. 문화원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문화원의 어르신들이다. 문화늦둥이들, 한번 들여다보자.



문화원이 참 고맙지

“문화원이 참 고맙지” 과천문화원 이재경

내가 일자도 못 썼어. 그런데 여기 와서 입선했어, 1년 만에. 엉터리였지 뭐. 늙은이라고 준거야.

이제야 필법을 알어, 8년이 되니까. 선생님 글씨가 이제 보여.

82세에 오행을 배워서 가르쳤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할머니는 의존 안 해. 젊을 때도 잘 했지, 좋아하는 일을.

나는 원서동에 살어. 거기 서울복지회관에도 가.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양반이야. 진품명품. 나는 해서를 안 했어. 행서로 들어와서 추사체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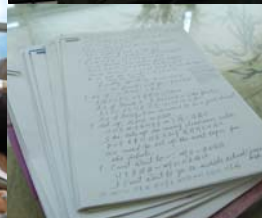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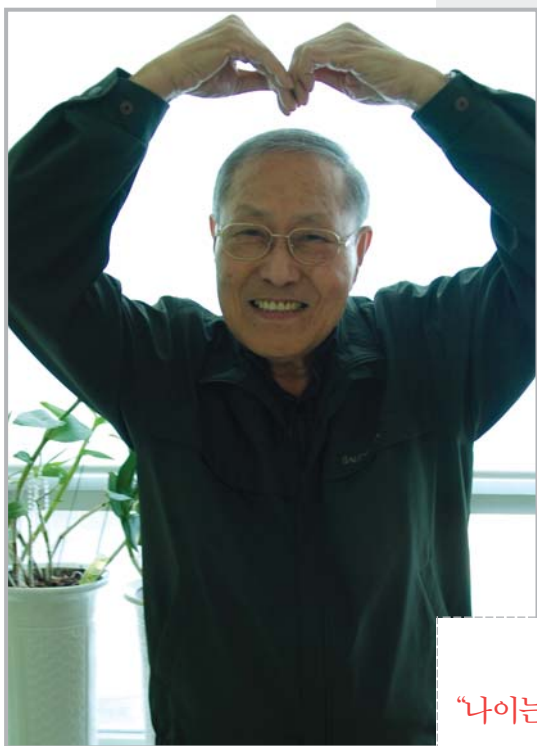
이렇게 글이나 그림 그러서 부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해. 마음이 좋아.
선생님이 열심히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

할머니, 옷은 많지 않지만 잘 입어 빗갈을 좋게 맞추면 돼. 월요일 아침에
는 요즘 안진경체를 배워. 그리고 목요일엔 여길 와.

옛날엔 타이피스트 했지. 요새는 컴퓨터로 하지. 나는 자수성가했어. 돈
을 요령 있게 쓰지.

언어도 막 하지 않아. 문화원에서 구십 잔치를 해줬어. 그거 참 고맙지.
고마운 일이야.

종로구 원서동에 사는 이재경 할머니는 추사체를 배우기 위해 매주 금요일 안국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과천문화원에 방문한다. 글씨 쓰는 게 좋기 때문이다.



나이는 나이테다

“나이는 나이테다.” 연수문화원 최영길

배움으로 보람을 느껴요. 내 삶의 전부예요. 문화원에서 그만큼 좋아.
문화원은 일주일에 두 번 와요. 여기 와서 인터넷 배워서 이메일 보내요,
해외로 이민 간 자식들한테. 손주가 영어만 해서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
은 영어로 아주 잘 지내. 더 돈독해졌어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아요. 이게
그런 편지들이예요.

여기는 우리 며느리가 알려줬지, 여기 가보세요, 했어요. 아내가 죽고 나
서 어쩌면 그냥 그렇게 슬퍼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곳을 알

게 된 거예요.

문화원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곳이죠. 문화의 배움으로 한 인간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연수문화원은 다른 학원과 차원이 달라요. 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게 아주 다양한 강의를 해줘요. 문화프로그램 있을 적마다 꼭꼭 문자 알리미도 해줘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가면 직원들이 또 얼마나 잘 해주는데요. 고독, 우울증 그런 것에서 나는 해방이 된 거예요. 문화원 덕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이예요. 항상 고마워요,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암투병 중인 최영길 할아버님은 영어를 더욱 잘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 꼭 언어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한다. 할아버님은 최고참으로 연수문화원 중급영어반을 다니고 있다.



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고성문화원 제명수

이름은 제명수이고, 나이는 올해 88세입니다.

성향교 전교,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하였고 향토사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무국장 황종래의 소개로 문화원에 출입하게 되었으며, 문화원은 1945년에 발족하여 고전문화(古傳文化) 조선조 때 저명한 학자의 문집(文集) 저서 한시(漢詩)등을 번역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고 각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책자로서 전 지역에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나에게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다

“나에게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이다.”

성남문화원 김용환

나는 김용환이고, 83세(28년생)예요. 회사 다니는 회원이었어요. 지금은 서양화를 배우러 다녀요.

문화원을 지나가다 직접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긴 무료로 강의를 들려줘서 좋아요. 강사진도 훌륭하구요. 교통 여건이 좋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다니기 편리해요.

나에게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무슨 일을 하든 나이는 생각지 않는다. 매순간 후회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해요. 순간순간 후회 없게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야 해요.

김용환 할아버님은 성남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서현문화의 집 수강생으로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가 활동으로 7년간 서양화 수업을 들으며 각종 전시회도 참여하였다.

덩더쿵우리가락 좋을씨구 동네방네 풍류나들이 꽃처럼 나비처럼

울산 중구 · 담양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서울 인사동 공연





지난 10월 30일(일) 13시부터 인사동에서 어르신들의 한 판 잔치가 열렸다. 울산중구문화원과 담양문화원의 공연이 바로 그것. 울산중구문화원은 길놀이(여는마당)를 시작으로 하여 매귀악 공연 태화루 예술단 울산학춤 등 우리 가락을 뽐냈다.

담양문화원은 풍물과 앓은반(앓은 사물놀이), 부채춤, 강강수월래로 지나는 이의 발길을 잡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참여문화원 및 프로그램

'덤더쿵 우리가락 좋을씨구'

울산중구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길놀이(여는마당), 매귀악 공연, 태화루예술단 울산학춤 등

'동네방네 풍류나들이-꽃처럼 나비처럼'

담양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풍물, 앓은반(앓은 사물놀이), 부채춤, 강강수월래 등





문화원 이야기 남해문화원

선선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문예마당'

남해문화원 주최,
제15회 남해문화의 날 열려
문화대상 시상, 백일장·서예·
그림그리기 등 문예경진대회

‘제15회 남해문화의 날’ 행사는 남해문화원(원장이호균)이 주최하고 남해문학회, 남해서도회, 화전이후회, 등 군내 문화 예술단체가 주관, 남해군, 남해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

제23회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마지막 날 진행된 이번 ‘남해문화의 날’ 행사는 색소폰 교실 수강생들의 색소폰 연주로 사전 분위기를 한껏 돋웠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친절봉사상, 문화대상,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친절봉사상에는 모범운전자로서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온 설천면 박성근 씨가, 문화대상에는 이웃 문신수 선생과 함께 ‘남해문학회’를 창립·조직하고 매 화전문화제 거리시화전과 남해문학회지, 학생문집 등을 꾸준히 발간해 군 전역에 문학사상을 전파한 이상범 씨가, 감사패는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문화관광과장





재직시 향토문화진흥과 문화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박길주 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호균 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며 “앞서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보단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아름다움이란게 문화가 아니겠나. 앞으로도 꾸준히 남해문화원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간극을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태 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모두 문화대통령”이라며 “흔히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개최되면 체육행사에 관심을 두는데 문

화행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 화전문화제 첫날 군단위 창작곡이 처음 군민들에게 선보여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남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또한 전국 최고로 손꼽을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남해는 문화와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내빈들의 축하 및 간단한 인사가 전달되고 식후 행사로 가야금, 선반설장구 등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과 소공연장, 보건소 주변 등에서 펼쳐진 문예경진대회에는 학생, 일반인 참가자를 포함해 학부모, 지도교사 등 총 1,200여명의 인원이 행사장에 들러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개원 14주년 기념

제86회 삼개시낭송회 및 출판기념회



지난 11월 9일(수) 오후 3시부터 유니아트홀에서 제86회 삼개시낭송회 및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마포문화원 경기민요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인 이애진, 김정래, 홍금자, 황금찬의 시낭송, 강경숙 소프라노의 축가가 이어졌다.

감사패와 위촉패 전달과 표창장이 수여되어 큰 박수를 받았으며 박홍섭 마포구청장의 축사, 박영길 마포구의회 의장의 격려사를 통해 마포문화원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게 했다. 마포문화원의 동영상 상영과 더불어 축하연으로 이어져 깊어가는 가을 밤 운치를 더했다.

문화원 돋보기

27

충청남도지회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지난 11월 23일(수) 10시부터 수원시민회관 중회의실에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이 열렸다. 충청남도내 문화원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로 경기 도지회 최영주 사무처장, 경기문화재단의 윤한택 실장, 우리회의 장상호 총무국장의 특강과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의 문화탐방도 이어졌다.

서울시문화원협회

제12회 서울문화가족 2011 한마당콘서트



서울시문화원협회(회장 이경동)는 지난 10월 25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문화원장, 심사위원, 서울문화가족을 비롯 시민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서울문화가족 2011 한마당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1,2부로 지방문화원발전 유공자 2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전수와 지난 9월에 있던 2011 국악·무용경연대회 시상식, 그리고 문화원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기여한 우수강사에 대한 지도자상 시상등 1부행사와,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011 국악·무용경연대회 우수팀 10팀과 특별 초청팀 2팀 등 총 12개팀이 공연을 펼쳤다. 이경동 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공연내용이 풍성하고 좋았다'며 '내년도에는 관람객을 위한 경품을 별도 준비하여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기회도 갖겠다'며 더욱 알찬 내년행사를 기약했다.

전라남도지회

2011 전남문화원의 날

지난 11월 4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가 주최한 2011 전남문화원의 날이 열렸다. 문화원상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에서 2009년부터 매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문화원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장흥문화원은 2011년 특색있는 문화사업 추진과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급의 다양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 나승만 목포대학교 대학원장의 지역문화발전(전남의 민속문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광주시지회

제1회 광주문화원의 날 행사 가져 _광주지역 문화발전 특성화 방향 모색



광주지역 문화원들이 지역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광주의 비전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문화원연합회(회장 김중)는 지난 11월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1 제1회 광주문화원의 날 행사를 갖고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빛낼 수 있는 문화원 상을 정립하는 등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5백여명의 광주지역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시물놀이 행사와 향토문화대상 시상, 식후 경품추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광주문화원연합회는 광주향토문화대상 제도를 도입해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나 향토시료 보존, 문화원형 발굴 등에 힘쓴 고 지춘상 전남대 교수에게 상을 수여했다. 또한 지역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한 연구자에게 광주향토문화는 문상을 수여키로 하고 최우수상은 "문화수도 광주의 총장축제 전국화 방안-2011년도 총장축제 내용을 중심으로"를 제출한 서담 전남도립대 실용음악과 교수에게 수여됐다. 한편 이번 광주문화원의 날 행사는 광주광역시문화연합회와 5개 지방문화원 및 문화가족 등이 참석하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식만들기, 다(茶)문화체험 등이 행사장 로비에서 함께 진행됐다.

정인서 / 광주광역시 객원기자

의성문화원

가을빛 고운 축제 제 29회 의성문화제

지난 10월 8일 '가을빛 고운 축제 제 29회 의성문화제'가 열렸다. 전야제 행사로는 의성군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리고 햇곡으로 준비한 음복을 나누었다.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곡신과 토지신을 섬기는 의성군 사직제는 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정성스럽고 엄숙하

게 치러지는 제례이다. 의성문화제는 군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서 그 동인의 예술활동을 총집산하는 자리로 합동전시행사와 공연행사, 그리고 각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치러졌다. 농민들이 가을이면 일 년간의 노고를 결산하는 추수를 하듯이 의성문화원도 그동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총 결산해서 가을빛 고운 축제 행사에 담아군민에게 여유와 재미를 선물해 오고 있다.

경주문화원

제19회 경주시 향토민요경창대회 개최



경주문화원원장 손원조는 지난 10월 25일(수)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에서 제19회 향토민요경창대회를 개최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향토민요의 발굴과 보전을 위한 이번 대회는 전문인이 아닌 경주시민 23명이 참가하여 지역에 전래되어 오는 우리의 농요와 민요로 그동안의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2부 순서로는 정순임 명창의 상주아리랑을 시작으로 가야금 산조, 입춤 등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신명나는 공연으로 참가자는 물론 관람객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최우수상은 나무지게 목발장단 소리를 부른 동방동의 김석두씨가, 우수상은 외동읍의 손임생씨, 장려상은 건천읍의 박임분씨와 정외분씨가, 인기상에는 성건동의 김말점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최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시의원,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소중한 우리의 전통의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화합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손원조 경주문화원장은 대회가 19회째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가자들이 있기에 가능하였으며, 또한 경주시 향토민요경창대회가 회를 거듭 할수록 전통의 보존과 전승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구문화원

"제6회 장수한마당" 성료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강만은 지난 24일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어르신들의 청춘 문화축제 "제6회 장수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서구 빛고를국악전수관 공연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은 아이돌 공연이나 70, 80 추억의 노래가 아닌 특별한 문화와 감성으로 어르신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노래와 사냥송, 시극, 하모니카 연주,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장기를 시연하며 특별한 하루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고 서구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어르신 문화축제는 서구문화원의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과 어르신문화학교 학생들의 졸업 공연을 겸한 행사로 서구 노인복지관의 부부 댄스스포츠팀, 서구문화원 설장고팀, 빛고를국악전수관 판소리반, 빛고를간강타운 오카리나와 하모니카반 등이 특별 출연하여 풍성한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위대한 서구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어르신들의 결집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축제 행사에서는 관객들의 호응을 통한 청중 평가단의 평가점수로 대상, 행복상, 청춘상, 한미음상 등의 상상을 겸해 참가하신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 드렸다. 어르신들이 바람직한 문화 창조자와 소비자로 활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공연 한마당은 기획에서 출연까지 관객과 무대가 구분 되지 않는 열린 한마당 잔치로 어르신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 이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긍정적 사고를 이끌어 가고자하는 서구문화원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주제이기도 하다. 이날 축제 공연에서 대상은 서정주 시인의 "신부"를 나레이션과 시극으로 감동 깊게 연기한 서구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팀에게 청춘평가단 대상과 서구노인복지관 한미음 부부팀이 행복상, 빛고를 간강타운 오카리나 팀이 청춘상을 받는 등 참가팀 모두 화기애애한 상상을 나누어 시종일관 즐거운 잔치 분위기였다. 강만 서구문화원장은 이날 행사를 끝낸 후 광주서구문화원은 어르신들이 언제나 이팔청춘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것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미래를 응시하고 전하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동해문화원

제1회 묵호동대마을 "논골 담길" 스크린투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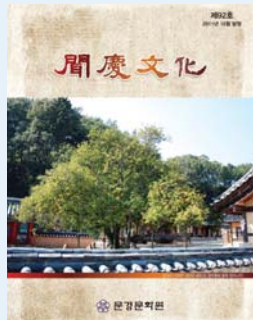
동해문화원원장 홍경표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되는 동해시 오징어축제를 기념하기위해 각종방송, 언론과 스크린에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묵호동대마을 논골 담길 스크린투어를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실시했다. 묵호항 개항 70주년과 제14회 동해오징어축제를 기념하고 묵호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전승차원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진행 중인 어르신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을 배경으로 오징어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스크린 투어이다. '포토 스토리텔링대회' '이이스크림타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문경문화원

문경문화 92호 발간

문경문화원 현한근 원장은 '문경 문화 92호'를 11월 3일 발간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135호인 산북면 대하리 장수황씨 종택의 탕자 나무가 노란 등불을 켜 표지에 30여 꼭지의 문경문화를 소개한 이 책은 계절별로 문경의 문화를 재볼 수 있는 종합문화지로 명성을 높여 왔다. 이번호에는 9월 30일 개최된 문경문화제에 대한 현한근 원장의 소회를 밝힌 '문화칼럼-문경문화제 소망'을 필두로 문경새재아리랑제 소식, 칠석차문화제 소식,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경시 문화의 날 소식을 특집으로 실었으며, 문경의 문화란에는 18회 연재물인 한국인 모두의 고개, 문경새재를 시작으로 10회 연재물인 문경의 생태, 2회 연재물인 문화예술인 탐방, 문경의 양조장 이야기, 문경의 서원, 문경내화리 삼층석탑, 문경 유곡역 탐방 등 문경의 정체성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밖에도 문경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였으며, 문경의 8개 단체 유림소식과 문화가족들이 엮는 글 마당과 문화가족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실어 이 한편의 책으로 시민들이 문경의 문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동래문화원

'열썬'어르신 동래학춤교실' 수료식 개최



동래문화원(원장 성 원주)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동래구에서 후원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열썬'어르신 동래학춤 교실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 초급반, 중

급반 60명을 대상으로 동래학춤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전통문화전승, 문화생활 향유, 건강유지라는 취지아래 6개월 동안 기초 걸음걸이부터 배워 익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지난 제17회 동래읍성역사 축제에는 읍성민속씨자랑에 참여하여 공연을 선보였다. 운영기간 중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교육주제 및 수업내용 환경시설, 강사진에 만족한다 답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 사회와 주민의 삶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수료식 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종료되나 어르신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계속 문화교실강좌에 참여키로 하여 동래인의 애학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생활 향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찾아기는 청소년 동래(東萊) 향토사 교실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래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래구,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후원한 '찾아기는 청소년 동래(東萊) 향토사 교실' 수업을 5월 7일부터 실시하여 11월 5일 동래중학교의 문화유적지 탐방 및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사업에는 명륜, 교동, 금강초등학교, 동래, 내성중학교의 5개교 500여명이 참여하여 해당 학교 강당 및 교실에서 동래의 유구한 역사와 주요 사건, 동래를 대표하는 인물,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있는 설화 등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모둠별 '설화 만들기'와 '동래역사지도 만들기'를 하고 작품 발표를 통해 보다 즐겁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 속 문화유적지인 총렬사, 동래부동헌, 송공단,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 학동산 등을 탐방하는 실질적이고 좋은 수업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잊고 지내던 동래의 유구한 역사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화유적지 직접 탐방으로써 선조들의 충절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지루하고 어려운 역사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며 '우리나라를 이끄는 큰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학교 교장은 '지역의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내년에 도 청소년들에게 향토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하였다.

평택문화원

제2회 지역희전국학술대회 11월 16일 개최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대한민국 국악계의 선각자인 평택출신 지역희 선생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악사의 학문적 기틀을 삼기 위해 11월 16일(수)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지역희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희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제2회 지역희전국학술대회는 지역희 선생의 예술세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국악의 보존과 계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국악 명인인 평택 출신의 지역희 선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날 학술대회 기조발표에서 국악 현대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지역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계를 새롭게 조명해 발표했다. 이어 박승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의 제1주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련 학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에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던 지역희 선생이 당시 한국음악의 척박했던 상황 속에서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게 된 과정과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몰두했던 선생의 업적을 발표하며, 노동은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의 제2주제로 무속음악 가운데서 태어나 숲한 역경 속에서 시나위 명인으로, 국악 교육자로, 영화 및 무용음악가로, 국악기 개발자로 활동했던 지역희의 삶과 예술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은영 한국음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지역희 음악의 근대성에 대해서 발표하며, 홍태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평택 민속문화의 특징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지문일(池門一家)로 불리는 지역희 선생의 딸 지수복 부산중앙국악원장이 아버지를 회상하는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었으며, 지역희 선생이 생전에 연주했던 경기

시나위 녹음에 맞춰 무용가 양길순 씨가 도살풀이춤을 선보였다. 4분야의 주제발표 후에는 이형환 중앙대학교 교수, 모형오 경인여자대학 교수, 전승배 신구대학 교수, 전인평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지역희 선생은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으로, 국악예술학교 교사 시절 유망한 신인들을 많이 길러냈으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활동했고, 1973년 시나위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로 이번 학술대회는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과 지역희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상립)가 주관했다.

포천문화원

학술연구발표회 개최·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은 "2011년도 학술연구발표회"를 10월 21일, 포천 유림회관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을 대리하여 홍윤기 포천시 경제생활지원국장, 김종천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웅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빈을 비롯하여 문화원 임·직원, 관내 유림 및 지도층 인사, 관계 문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구발표회는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종서 교수의 '지천 황정욱 선생의 삶과 문화',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의 '동은 이의건 선생의 삶과 자취', 대전대학교 박경자 교수의 '삼연 김창흡 선생의 생애와 학문' 등 사학계의 저명한 세 분의 교수가 참여하여 집중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규 원장은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내신 위인,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으로, 이러한 우리 포천의 선현들이 나라를 위해 서 또는 학문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포천 시민들이 좀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계승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학술연구발표회 연구 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 참가자 및 포천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포천을 빛낸 인물에 대한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함안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치녀뱃사공 가요단" 수료



2011년 11월 3일(목) 함안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체넛벳사공 가요단 수료식을 하였다. 체넛벳사공 가요단은 함안문화원(원장 조훈래)에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4월 5일 40여명의 참석으로 개강 하였으나 학습의 우수함이 일러져 김여산 외 59명이 수료하였다. 박용수(한국연예예술인협회함안지회장)강사의 능률적인 학습지도와 제1회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여 가요단 어르신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게 기회를 주어 호응이 더 좋았다.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식은 하였으나 매주화요일 자체적인 모임으로 체넛벳사공 가요단을 운영하여 문화나눔 봉사활동도 하신다하니 어르신들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연구 18호 발간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전봉구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역사인물에 대한 뿌리 찾기 등의 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는 <성남문화연구> 18호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18호에는 문수진 박사가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최만순 박사의 '성남의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 연구', 김주홍 박사의 '성남지역의 선현묘역(1) 청주한씨', 한동익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이 '성남의 백제 전설 설화', 서종원 박사의 '판교 쌍용계(巨瀾대리)기 재고찰 연구' 논문과 성남문화연구 제1~17호, 학술회의 1~15회, 학술토론회 1~9회 연구 논문 총목록이 부록으로 수록됐다.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1993년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이후, 학술회의, 학술토론회, 학술세미나 개최와 천림산 봉수지 복원사업 추진, 『성남인물지』, 『성남금석문대관』, 『고려명신전』, 향토문화총서 『마을지』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성남문화 연구에 최고 전문 기관으로 발전했다'며, '내년에도 우리 고장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와 향토문화 연구에 박차를 가해, 성남학(城南學) 연구의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화원

제6회 경기·광주권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경기도 광주문화권협의회(회장 양인석 하남문화원장)는 지난 11월 17일 '제7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제6회 경기·광주권 순국선열 추모제'를 11월 15일 오전 11시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순국선열 추모제'는 나라와 민족,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 추모공연에서 신미경 무용가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2부 추모식에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개회사, 제문봉독, 추모사, 추모시(한춘섭 작시 '의병의 노래') 낭송, 헌화 및 분향,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이어졌다.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의 문화가 족이 순국선열 유가족을 모시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추모하게 된 것은 선열들이 남긴 위국헌신의 뜻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화권협의회는 2006년 4월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의 제안으로 창립된 이후 '경기·광주권 순국선열 추모제', <산성논지> 발간, '심봉사생대회',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등의 문화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소식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추가 지원 공연

- 11.02 합천문화원
- 11.26 울산중구문화원
- 12.07 마산문화원

회장동정

- 11.04 전국농어업인품물경연대회
- 11.09 광주문화원의 날
- 11.17 경기도 지역 문화원 임직원 연찬회 참석
- 11.19 영주문화원 (2012년도 지방문화원 예산안 업무 협조)
- 11.21 합천문화원 개원식
- 11.22 2012 향토사 대중화사업 'DMZ 스토리' 춘천
- 강원도지사 면담
- 11.24 2011 국회 시낭송의 밤
- 예결위원장 방문 (2012년 지방문화원 예산 협조)

신임 원장



광주광산문화원
이현선

임기 2011.11. 12 ~ 2015. 11. 12
- 1993, 송정농협조합장
- 2010 광주농협설조합 대표이사
-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원장 동정



경주문화원
손원조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본상
201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본상에 손원조 경주문화원 원장이 선정돼 지난 21일 경주엑스포공원 문화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1996년 경상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 제정된 경북도민상은 지역발전에 공헌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대표 등 360여명이 수상했다.



남해문화원
이호균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경남도내 문화과 조형예술, 공연예술과 체육 등 총 6개 분야에서 최고의 공헌자를 가려내는 제50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이호균 남해문화원장이 선정됐다.
경상남도 학술·지역문화계발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이호균 문화원장은 지난 2007년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퇴임 원장



광주광산문화원
류복현

광산구사 편찬위원장
임방울 국악재단 운영위원 및 이사
로렌시아의 집 운영위원장

전국 사무국 동정

서울 양천문화원

퇴직
사무국장 우형찬(2010년 11월 1일 ~ 2011년 11월 7일)
과장 신경미(2010년 08월 2일 ~ 2011년 1월 18일)
간사이진희(2010년 08월 2일 ~ 2011년 4월 19일)
채용
간사 정대수(2011. 01. 01)
서기 이희은(2011. 04. 01)

청양문화원

채용
사무국장 이병운(2011. 11. 01)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감사의 말씀

지난 11월 12일 새벽,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최종수 회장님과 229개 지방문화원 원장님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장 정수현
제주문화원장 신상범
서귀포문화원장 김병수 올림

